

# “일산이 너무 좋아”

일산에만 당도하면 내입은 “아우, 일산이 너무 좋아” 소녀처럼 실토한다. 우리 집은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일찍이 쓴 내 소설 「광산곡」에 韓一山, 「오월의 축제」에 주엽이가 등장했는데 그들을 낳은 내가 늑마에 같은 이름의 일산구 주엽동에 산다니 이런 기연도 있는가. 게다가 마을 이름도 문촌마을이다. 그뿐인가 우리 집과 눈코 사이로 지척에 있는 호수공원 역시 나를 사로잡는다.



具曄環

〈소설가/한국문협부이사장/한국소설기협회 대표위원〉

가 을이 되면서 서울 나들이가 잦아졌다. 이런 저런 행사, 모임이 잇따르는 탓이다. 일산 집에서 서울까지 주로 지하철로 가지만 형편에 따라 서울에 일터가 있는 아들 차에 편승하기도 한다. 귀가시간은 일정치 않다. 역시 지하철로 돌아온다. 간혹 방향이 같은 문우(文友) 차 신세를 질 때도 있다.

어떻게 무엇으로 오건, 일찍이거나 한밤중이거나 거의 매번 일산에만 당도하면 내 입에서는 절로 “아우, 일산이 너무 좋아!” 하는 철부지 소녀같

은 실토가 튀어나오고 만다. 곁에 인기척이 있을 때엔 속으로, 없으면 아예 입 밖으로 내어서 신파조로 외친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청량한 대기 속에서는 그런 직설 과장법 애정표현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집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이다.

## 내 소설에 등장한 一山·주엽

왕년에 쓴 장편소설 「광산곡」에 한 일산(韓一山)이 나오고 「오월의 축제」에 주엽이가 등장한다. 일찍이 그들을 낳은 내가 늑마에 일산구 주엽동에 살게 되었으니 이런 기연(奇緣)도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게다가 하필이면 문촌마을이다. 그리고 호수공원. 우리 집과 눈코 사이로 가까운 지척에 그것은 있고, 그 호수공원이야말로 일산살이라곤 염두에도 없던 우리 가족을 옮기며 씩우듯 대번에 끌고온 동인인 것이다.

인근 일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참 시끄러울 무렵, 우

리는 잠잠히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살고 있었다. 주택청약 1순위였건만 추천하지 않았다. 일산이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던지. 아마도 38선 강박 탓이었던 듯하다.

학창시절에 계룡거사로 불리던 아들친구가 있다. 그는 일찌감치 분양 받은 일산 아파트에 살아보더니 조석으로 서울 일터와 일산 집 사이를 오가며 그 중간지점인 불광동 우리집에 곧잘 들려서는 누가 묻지도 않은 일산 예찬을 한바탕씩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쪽은 종내 마이동풍이었다.

그 새에 4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어 입주도 끝나가던 어느 날, 예고없이 한낮에 들이닥친 계룡거사에 의해, 우리 고부는 소풍삼아 한번만 나가보시자는 선심강권에 못이긴 채 그의 차에 올라 단숨에 일산으로 향했거니와, 결과적으로 우리집 일산 정착은 바로 그 당일로 결판을 본 것이다.

불광동에서 연신내를 지나 구파발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바뀐 전원풍경의 추이에 따라 차츰 마음 속 폐쇄된 문틈에서도 끼었던 먼지가 털리고 숨통이 트이더니 마침내 일산 신도시에 이르자 그 외곽 30여만평 부지에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목하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들은 것이다.

호수는 여러번 내 소설의 모티브였다. 장편 「그리운 湖水」도 출판단계에서 「고래의 노래」로 개제(改題)된 것이다. 어느새 내 망막에는 푸른 호수를 에워싼 울창한 숲, 그 속의 샛길, 팔짱끼고 거니는 아들 내외, 노니는 어린이들, 속삭이는 연인들, 수다떠는 친구들, 벤치에 앉아 해바라기하는 노인들, 그들 사이를 소요학파처럼 누비며 작품을 구상하는 나

자신 ….

하고 보니 깨끗한 호숫가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 정열로 글쓰기에 골몰하는 늙은 나 자신의 그림도 맘에 들었다. 그런데 계룡거사 그 친구가 끌고간 집이 호수공원 끝자락 지척에 있었고 베란다에 서보니 서북방 눈앞이 거침없이 훤히 트인 허허한 들판인데 그 너른 공간 여백 위에 난데없는 영화장면 한컷이 꼭 차게 매우는 것이다.

‘닥터 지바고’

장래가 기약없는 안타까운 사랑 라라와 눈에 갇힌 시골별장에서 함께 창 너머로 바라보던 눈덮인 시베리아 광야. 저멀리서 들리는 허기진 승냥이 울음소리….

하지만 이곳 질편한 평지 공간은 한줄기 띠처럼 가로지른 자유로가 부드러운 둔덕이 되어 이쪽 사람 사는 마을을 아늑히 감싸니 야성의 승냥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저 너머에는 전래의 일산 전답평야와 그것을 끼안고 구비도는 한강 하류가 38이 북에서 내려온 임진강과 구순히 화합하여 다정히 서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을 터이었다. 어김없는 연분이었던가 보다. 그날로 내놓은 불광동집도 데깁 임자가 나타나 우리의 일산 정착은 전광석화로 마무리되었다. 주택 청약은 무위로 돌아갔다.

### 호수공원은 일산의 허파이다

옮겨온지 두어달 후에 호수공원은 일단 완성되어 그 해의 예정된 5월 어린이날에 문을 열었다. 31만3천여 평 부지에 호수는 9만여평으로 그득히 끌어들이는 물도 풍량했다. 한강물이다. 호수를 한바퀴 휘감는 산책길

은 자전거 전용길과 보행길로 나뉘어 나란히 완만한 곡선으로 아득히 이어지고 그 언저리 잔디밭에 심은 나무들도 서너해가 지난 지금은 그런대로 뿌리가 자리잡은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그리 풍성한 그늘을 드리우지는 못한다. 소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미류나무, 단풍나무, 보리수, 백양, 회화나무, 마로니에, 삼나무, 벚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 날에는 호수공원의 한낱 별도 지금처럼 그렇게 쟁하게 해변처럼 강력히 반사하지는 않으리라. 호수공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선글라스가 필수품이다. 호수공원은 일산의 허파다. 특히 오전과 저녁 무렵의 호수공원은 더없이 쾌적하고 아름답다. 성목 식수한 나무들은 뿌리가 자리를 잡느라고 아직은 잎새가 성긴 편이지만 하늘빛에 따라 변하는 호수를 에워싸고 물과 하늘이 자아내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미묘한 변화를 새긴다.

날로 여기차지는 서울의 공해를 피해온 일산 사람들은 조석으로 싱싱한 허파 호수공원으로 몰려든다.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맨손체조도 하고 축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친다. 목줄이 풀린 애완용 개들도 즐랑쫄랑 주인따라 산책길로 나선다.

잔디밭 곳곳에 세워진 조각품을 감상하며 꽃길따라 한울광장을 한바퀴 돌고는 아담한 달맞이섬으로 향한다. 부안교(鳧雁橋) 돌다리만 밟으면 달맞이섬이다.

지금 이 한창인 역새발을 끼고 약초동산을 바라보며 월파정(月波亭)에도 올라가 본다. 다시 철지난 물싸리 꽃밭, 끝 무렵인 야생국화밭 샛길을 따라 평류교(萍柳橋)를 넘으며 자생잡

목으로 뒤덮여 울창한 전망동산으로 향한다.

어느새 조락이 완전한 늦가을 호수공원에는 지천이던 꽃들은 모두 퇴출하고 가을꽃의 여왕인 국화밭만 한창이다. 그 곁에서 검질긴 베고니아, 꽃잔디, 데이지 정도만 마지막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회계 칠한 등근 목책 울타리안 장미원에는 가을에 다시 핀 붉고 희고 노란 구라과종 장미꽃이 크고 작은 꽃송이를 쳐들고 여왕다운 여운을 풍기고 있다. 벨아미, 갈리발다, 루지메이양, 라위니아, 네온, 친친, 마라리, 골드바니, 그라프제나르… 등등 저마다 이름도 생소한 독일계, 프랑스계 장미꽃이다.

첫 추위가 물려온 만추의 한나절. 서재 책상머리에서 비스듬히 내려다 보이는 호수공원에서 누가 자꾸 부르는 듯하다. 겨울 덧옷 꺼입고 행하니 나간다. 텅빈 호수공원에는 출렁이는 감청색 호수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질푸른데 인기척 멎은 뜨락에는 마른 풀 냄새로 그득하다. 그것은 향수(鄕愁)의 내음이다.

저만큼 눈앞의 백양나무 숲새로 그림자 하나 섬광처럼 비껴간다. 재빨리 다가간다. 묘목도 성목도 아닌 중키의 백양은 일흔그루가 도열하여 작은 숲을 이루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마른 잎새를 매단 백양 숲이 어기찬 바람결에 맞춰 혼신의 힘으로 춤을 추니 그 몸에서는 종소리, 피리소리, 아쟁소리, 거문고소리가 천상의 화음을 자아낸다. 지금, 늦가을 호수공원 안에는 저 천상의 음악에 귀기울이는 나, 그리고 형태없는 섬광, 그리운 그대 뿐이다. ④7